전문 의료진도 뛰어든다… 판 커지는 '의료 데이터 라벨링'

닥터웍스, 의료 라벨링 시장 진출
25개 의료분과서 250명 인력 확보

제이엘케이, 라벨링 플랫폼 '성과'
재이랩스, '라벨링 SW' 자체 개발

제이엘케이의 '헬로데이터' 플랫폼.

제이엘케이 인공지능 솔루션 '핸드메드 제이뷰어엑스'를 이용한 모습. /제이엘케이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AI 학습을 위한 의료 데이터를 직접 라벨링(가공)하거나 데이터 라벨링을 반자동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의료 전문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닥터웍스는 전문 의료진들을 모집해 의료 데이터 라벨링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재이랩스·힐세리온 등도 자체 개발한 라벨링 소프트웨어를 대형 병원에 공급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가공 사업에 나서고 있다.

또 제이엘케이도 빅데이터 플랫폼 '헬로데이터'를 개발해 의료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직접 라벨링하는 데이터 가공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시장조사 업체인 마켓스앤마켓스에 따르면, 전 세계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8년 21억 달러로 출발해 연평균 50%씩 급성장, 오는 2025년 362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44.60%로 2023년 2조465억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 대형 병원들이 의료 AI 기업과 손잡고 의료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거나 의료 솔루션 도입을 본격화해 AI 학습을 위한 전문 의료 데이터 라벨링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전문 컨설팅기업인 닥터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데이터 라벨링 인력풀을 확보하고 국내 의료 라벨링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해 설립된 닥터웍스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출신의 이희상 대표를 비롯해 의료데이터 연구 경력 10년 이상 임직원 등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 AI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들로 구성됐다.

특히, 의료 AI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정확도 높은 의료 데이터 라벨링을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회사 설립 3개월 만에 25개 의료분과에서 250여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 전문 데이터 인력풀을 확보했다. 전문의들은 정확도와 신뢰도 높은 의료 데이터를 요구하는 AI 기업 요구에 맞추고 기술 고도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 가공, 검수까지 의료 데이터 라벨링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이희상 닥터웍스 대표는 "전문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AI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고품질 의료 데이터 자문과 가공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라벨링 기업인 재이랩스는 MRI, CT 등 의료 전문 데이터를 편리하게 라벨링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메디라벨'에 대해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대형 병원에 의료 데이터 라벨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재이랩스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설립 후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내놓고 대형 병원과 랩실에서 사용하면서 사용자 평가와 피드백을 받아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 왔다"며 "지난 11월부터 랩실, 병원 등 베타 테스터를 추가로 모집해 테스트 진행 후 현재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MRI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위해서는 암세포 등을 일일이 손으로 체크해 색칠을 해야 해 불편한데, 딥러닝 기반의 메디라벨을 활용하면동시에 비슷한 부분을 선택해 반자동으로 색칠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 프로젝트 단위별 대용량 의료 데이터 관리, 2D영상의 라벨링, 몇 번의 이미지 클릭만으로 라벨 구역이 지정되는 스마트 펜슬 기능 등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엘케이는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 '헬로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500%나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이엘케이는 대형병원, 제약사 등 의료 기관에 B2B(기업간) 방식으로 고객에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헬로데이터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분석이 가능하고,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휴대용 초음파 기기로 주목을 받은 힐세리온도 최근 AI 학습용 의료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플랫폼을 런칭하고, 의료 데이터 가공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의료데이터를 모아 의료 AI 기업 등에 판매하는 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신세계, 동남아 모빌리티 플랫폼에 투자

'그랩' 차량 호출·배달 최대 플랫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너지 기대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신세계그룹의 벤처캐피탈(CVC)인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및 배달·금융서비스 플랫폼그랩(Grab)에 투자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랩은 2012년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음식 및 식료품 배달, 금융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동남아시아 대표 슈퍼앱이다. 슈퍼앱은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가능한 앱을 뜻한다. 현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8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2억 1400만건 이상의 모바일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그랩이 수백만 명의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라는 점과 동남아시아지역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투자하는 것은 물론 스타트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그나이트파트너스는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7월 설립한 벤처캐피탈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설립됐다.

지난해 첫 해외 투자처로 미국의 유망 패션 기업 인타이어월드(Entireworld)를 선정했으며 이후 패션테크기업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부동산 개발 및 임대관리기업 홈즈컴퍼니에도 투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30년 인텔맨' 팻 겔싱어, 인텔 CEO 취임

"미래 위한 기술리더 되찾을 것"

인텔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CEO를 맞이했다.

인텔은 16일 팻 겔싱어(사진)를 CEO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텔에서는 8번째 CEO다.

겔싱어는 인텔에서 30년을 근무했으며, 이후 EMC와 VM웨어를 거쳐 다시 인텔로 돌아오게 됐다.

겔싱어는 "신임 CEO로서 기술 발전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회사의 위대한 아이콘을 되찾아 다시 미래의 리더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정말 감격적"이라며 "인텔의 핵심 DNA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위한 기술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인텔의 최고의 날은 우리 앞에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겔싱어는최근 빠르게뒤쳐지는 인텔을 다시 본궤도에 올릴 임무를 맡게된다. 1979년 인텔 첫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역임하는 등 전문가로, 경쟁사에 빠르게 추격당하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앞서 겔싱어는 VM웨어에서 CEO로 제직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와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연간 매출을 3배 성장시키는 등 공을 세운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

알서포트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수요기업에 무료 상담

글로벌 비대면·원격 솔루션 전문기업 알서포트가 'K-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수요기업'을 위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K-비대면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제품의 이용료 90%를 정부가 부담한다.

알서포트는 올해도 ▲화상회의 서비스 '리모트미팅' ▲재택근무 및 원격제어 서비스 '리모트뷰' ▲원격지원 서비스 '리모트콜' 등 비대면 서비스 3종을 제공한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국민 86% "부모 소득, 교육격차에 영향"

이탄희 의원 설문조사
64% "코로나19에 교육격차 커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커졌다'는 응답이 64.4%, '커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22.6%였다.

교육 격차가 심해진 이유로는 ▲학생·교사 간 소통 한계(35.9%) ▲가정 환경 차이(30.7%)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차이(20.3%) ▲온라인 학습기기 보유 여부(7.8%)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6.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는 33.2%였다.

한편 교육 격차에 부모의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86.0%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8.8%였다.

'초중고 학생이 있다'고 답한 응답층에서는 81%가 '영향 있다'고 답해 '영향 없다(12%)'는 답변보다 6.7배 높았다.

/이현진 기자 lhj@

에어부산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세요"

펫 푸드 키트, 펫 탑승권 등 증정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이 현대인의 라이프 트렌드를 고려해 펫팸족(Pet+Family)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에어부산은 16일 국내선 이용 시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게 고품질의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으로 구성된 '웰츠(펫 푸드) 트래블 키트'와 '반려동물 전용 탑승권'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웰츠(펫 푸드) 트래블 키트는 김해·김포·제주·울산 지점 카운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전용 탑승권은 탑승수속 시 카운터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증정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